

## 국민의당, 광주 8곳 석권 '야심'

Ⓢ 선택 4·13 D-15

■ 2野가 본 초반 판세

4·13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 초반부터 정면충돌하고 있다. 초반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면서 선거 승리를 일컫내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4·5면>  
두 야당은 호남 민심 흐름과 관련,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초반 판세에 대해 더민주의 상승세가 한 풀 꺾이면서 균형추가 국민의당으로 조금씩 기울어 분위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거 초반 호남지역 판세는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우세하고 전남과 전북에서는 인물과 구도에 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팽팽한 대결 구도가 펼쳐

국민의당, 광주 우세 7·박빙 1...전남 6~7·전북 5~6곳 우세  
더민주, 광주 우세 1·박빙 3·열세 4...전남 5·전북 6곳서 우세

지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 파동 등으로 더민주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이 선거 초반 유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민주의 광주·전라지역 정당 지지율(34.8%→28.7%)은 6.1%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당은 광주·전라(36.3%→38.6%)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 당의 지지율 격차는 9.9%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투표율이 높은 50대 이상에서 국민의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세대별 투표율을 고려하면 더민주에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광주에서 전석

을 석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광산 읍에서 박빙 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에서도 6~7개 선거구, 전북에서 5~6개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광주의 더민주 후보들 가운데 정당 지지율 격차를 극복할 만한 후보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호남 민심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면서 국민의당의 완승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에서는 최근 비례대표 공천 파동 등으로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상승세가 꺾인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제1야당의 지력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가능하며, 선거 막판

정권 창출을 위한 호남 민심이 전략적 선택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는 광주에서 1개 지역구(광산 읍) 우세, 3개 지역구(서갑, 북을, 광산읍) 박빙의 판세를 보이고 있고 4개 지역구도 열세지만 지지율이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남에서는 최소 5개 선거구, 전북에서도 6개 선거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과반 이상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광주는 약간 열세지만 박빙 지역이 여러 곳이 있어 막판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전남과 전북은 확고한 우세지역이 많아 최소한 과반 이상의 지역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은 선거 중반 이후 형성될 호남 민심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중반전 이후 형성된 민심이 호남의 승부를 결정짓고 수도권 전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호남 적통' 경쟁

더민주 김종인 대표 "호남 대변자" 자처  
천정배 대표 "국민의당이 호남 주체세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주도권 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날 '호남 대변자'를 자처하자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28일 "국민의당이 호남 주체세력"이라고 응수하며 '호남 적통' 경쟁을 하고 있다.  
더민주 후보들은 지난 24일 후보 등록을 전후해 5·18 묘지를 참배했고 김종인 대표는 지난 주말 광주·전남을 찾아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참석 등 강행군으로 호남 세몰이에 나섰다. 특히, 김 대표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한 사람의 욕심에 따라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고, 호남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결국 야당을 분열시켰다"며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인사들을 분열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그는 이어 "광주 유권자들이 분열된 야당 형태를 그대로 인정해서 한국의 야당사에 얼룩을 남겨주지 않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에서) 새로운 싸움 키우겠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기득권 정치인들만 준비하게 늘어났고, (광주가) 기득권 패권정치를 실현하려는 곳이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열린 '경제살리기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저는 여기서 초·중학교를 졸업했고, 뿌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 호남인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 이 소망을 더민주와 제가 완벽하게 대변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 광주 총선 후보 8명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월 영령들의 묘비를 뒹구며 결의를 다졌다. 총선후보 등록 직후 '기선 제압' 경쟁에 들어간 더민주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됐다.

후보들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야권재편의 중심 세력이 되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의 새로운 고두보물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지지 호소했다.  
광주 서을 후보인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오월광주의 정신은 누구나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는 상생과 대동의 세상을 열자는 염원"이라며 "호남이 들러리는 게 아닌 호남 주도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해달라. 국민의당이 호남 주도 주체세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임내현 선대위 상황본부장은 김 대표의 '광주가 야권 분열을 인정해 야당사에 얼룩을 남겨선 안 된다' 등의 발언에 대해 "못 먹는 감 짭뽕이나 보는 식으로 정글서 못된 짓만 하다가 요직을 물러온 늙은 하이엔드처럼 무례하게 깎아내는 행태"라며 "기분이 안 돼 있는 작태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ikpark@kwangju.co.kr



황룡강 둑길을 푸르게 광주지역 낮최고기온이 18.8도를 기록한 28일 광주시 광산구 박호동 송산공원 인근 황룡강 둑길에서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과 시민 등 600명이 목련·수수꽃다리 등 1600그루를 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재활치료 이젠 로봇이 돕는다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환자들이 로봇의 도움을 받아 재활치료를 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현대중공업 등 6개 기관과 28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국산 의료로봇 공급 및 실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광주시, 현대중공업,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전남대병원, 광주제

크노파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총 7개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 제2시립요양병원은 대당 4억원 가량의 보행재활로봇 1대와 4000만원 짜리 환자 이동보조로봇(사진) 1대를 무상으로 확보했다.  
보행재활로봇은 환자들이 걷는 발판이 로봇역할을 한다. 기본 보행 및 계단 및 경

보행재활로봇·이동보조로봇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2대 도입

사 보행훈련 등을 컴퓨터시스템으로 제어한다. 환자 이동보조 로봇은 환자들이 병원침대에서 로봇에 안겨 리모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장비다. 사람의 등에 얹히는 것과 유사하다.  
광주시는 이들 로봇이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 여러 원인으로 보행이 어려운 요양병원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



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빛고을권강타운 안에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재활치료기관에 로봇이 도입된 것은 국내 최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빛고을권강타운 안에 있다.

광주 화물연대 파업  
기아차 수출 초비상 ▶6면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 빨리  
추진 도시 일본 기아퓨슈 ▶18면



'돌아온 타이' 임창용  
KIA 타이거즈 뒷문 지킨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1번지 / TEL 062226-0001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www.hyosunglexus.com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1번지 / TEL 062226-0001

www.hyosunglexus.com